최태원, ‘AI 플라이휠’ 전략 제시… “글로벌 기업 개방적 협력”

〈SK그룹 회장〉

SK그룹 최고경영자 세미나

최재원·최창원 등 주요 경영진 참석
기존사업 점검·중장기 성장 전략 논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0’ 자본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CEO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중심의 인공지능(AI) 사업을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이어 서비스까지 확대해 전 계열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AI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AI 플라이휠(Flywheel)’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경영진은 사흘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존 사업의 틀을 깨고 스스로를 ‘AI 컴퍼니’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모든 멤버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 AI 서비스와 토큰 이코노미까지 연결하는 ‘AI 플라이휠’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AI 플라이휠은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전략이다.

SK그룹은 AI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연산과 서비스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거래되는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 플라이휠 전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투자도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 및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위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 및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도입해 국내 최대 2기가와트(G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027년부터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엔비디아 및 리벨리온과는 GPU·신경망처리장치(NPU) 통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개편도 AI 투자 확대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SK그룹은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0’을 통해 미래 성장 분야에 자본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도 사업 재편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대신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건설·환경 중심에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산업용 가스와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을 편입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다.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각 계열사의 생산 현장과 업무 체계에 AI를 적용하는 ‘실전형 AI 전환(AX)’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AI 기반 공정 분석으로 생산 수율 개선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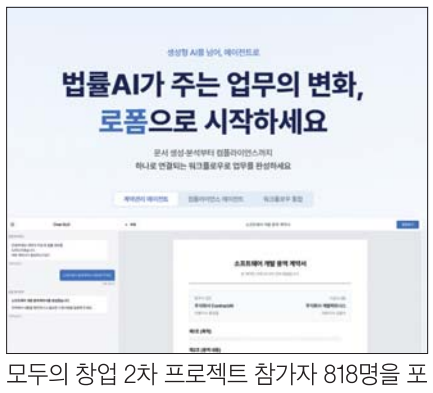
SK텔레콤과 SK가스도 각각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와 시황 분석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SK그룹은 현장 중심의 AI 활용 성과를 다른 계열사로 확산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해 역량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정부 사업 개인정보유출 반복… 보안체계 개편·강화 시급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피해 속출
공식 플랫폼·공급기업 평가 ‘구멍’
중기부 “보호조치 지속 점검·관리”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참가자 818명을 포함해 총 2만28명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아미쿠스렉스의 ‘로폼’ 서비스 화면 갈무리.

이재명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전국민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모창) 프로젝트’가 또다시 참가자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모창 공식 플랫폼이 아닌 50개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차 프로젝트에서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최종 유출된데 이어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도 참가자 818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가면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안 체계 개편·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 1550억원이 투입된 모창 프로젝트는 내년 계획된 예산만 4411억원에 이른다. 국회가 중기부 예산안을 연말에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년간 총 60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모창 프로젝트의 AI 솔루션 공급기업 50곳 가운데 하나인 ‘아미쿠스렉스’(솔루션명 ‘로폼’)가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 자체 시스템에서 외부 해킹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총 2만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2차 모창 프로젝트 참가자 818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0개 AI 솔루션 공급회사들은 중기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 사마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솔루션을 선택한 참가자에게 계정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3자 제공을 위한 동의 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와 시행기관인 창업진흥원은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고를때 개인정보 보안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선정했다.하지만 이번 아미쿠스렉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공급사 평가에 헛점을 보이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고는 모창 공식 플랫폼의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AI솔루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체 모창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지난 1차 모창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은 공식 플랫폼에서 벌어졌다. 당시 중기부와 국가정보원은 조사를 통해 관련 플랫폼을 통해 합격자 5000명 전원의 이메일 등 일부 정보가 최종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1차 프로젝트에는 6만2944명이 지원한 바 있다.

1차 유출 이후 중기부는 관련 플랫폼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체 플랫폼이 아닌 솔루션 공급사로부터 보안 이슈가 불거져 모창 프로젝트 보안 거버넌스 구축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모창 3·4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도 올해 1만5000명(1차 5000명+2차 1만명)보다 많은 3차 1만명, 4차 1만명 등 총 2만명을 목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육, 사업화, 네트워킹, 후속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원화강세·유가하락에 수입물가 ‘뚝’… 기준금리 변수 부상

10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1.8%↓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한국의 10월 수입원가 부담이 줄어든 반면, 일본은 수입가격 상승에 엔화 약세가 겹쳐 부담이 커졌다. 국내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비용 완화가 한국은행의 물가 대응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12일 공개한 같은 달 수입물가는 엔화 기준으로 3.3%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함께 수입비용을 낮췄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9월 1359원에서 10월 1337.66원으로 1.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도 배럴당 113.71달러에서 110.73달러로 2.6% 내렸다.

실제 거래에 쓰인 통화로 보는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에 그쳤다. 원화 환산 과정에서 환율 하락 효과가 더해져 낙폭이 커졌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지만 “환율 하락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원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수입원가 하락은 생산·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 10월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여전히 13.5% 높았다. 같은 달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움직임만으로 비용 완화 효과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과 같았다.

세부 흐름은 엇갈렸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9월 2.1%에서 10월 2.9%로, 생활물가는 2.5%에서 2.6%로 높아졌다. 반면 개인서비스는 3.5%에서 3.3%로 낮아졌다.

한은은 지난 3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증대를 경계했다. 새 수입 계약의 가격이 내려가도 앞서 쌓인 비용의 국내 가격 전가까지 곧바로 멈추진 않는다. 신 총재는 “비용의 가격 전이와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가 맞물려 있으며, 수요 측 압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에는 수입원가 하락의 지속성과 함께 국내 가격의 오름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중요하다. 환율·유가의 비용 완화가 이어져도 기존 비용의 가격 전가와 수요 압력이 강하면 물가 대응 부담이 남는다. /김주형 기자 gh471@

›› 1면 ‘엔비디아, 670조 AI구상’서 계속

GPU 공급전략 이목집중 정부 “사업 협력 재확인”

◆차기 경영진 정책,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영향

이에 따라 차기 경영진의 금융지원 정책과 차세대 GPU 개발·공급 전략에 따라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객사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조정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사업 계획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영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적용할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GPU 생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에 따라 추가 발주 규모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서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약속한 AI 인프라 협력의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GPU 26만장 이상을 공급하는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GPU 공급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엔비디아 측과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GPU 26만장 공급과 기존 협력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사회는 크레스 임시 CEO와 경영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회사 운영과 고객에 대한 약속, 제품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